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지현¹ · 조금이²

¹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 ²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접수 2016년 2월 29일, 수정 2016년 3월 23일, 게재확정 2016년 3월 25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간호학과 1, 2, 3, 4학년 남자 학생 171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동료 관계 및 몰입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6.1%였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동료관계 및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간호대학생,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삶의 목적으로 (Kim, 2009),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다 (Diener, 1984). 행복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행복을 결정하는 객관적 요인인 연령, 결혼 여부, 소득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행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이러한 객관적 요인들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등, 2003; Park과 Kim, 2006). 따라서 개인의 행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Kim과 Han, 2006).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 (You, 2002) 업무 스트레스가 낮고 (Lee, 2011)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Danner 등, 2001). 또한 면역력이 높고, 장수하며 (Ostire 등, 2000),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 우울과 자살 증상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Fredrickson 등, 2003).

행복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발견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심리적·성격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Kwon, 2008), 그 중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Kwon 등, 2006) 보고되고 있다. 행복과 관련된 긍정심리 특성 중 감사성향은 긍정적 경험이나 결과를 획득함에 있어 타인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 상태로 (Kwon 등, 2006),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을 적게 경험하며 (McCullough 등, 2002),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고 그 경험을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Kwon 등, 2006). 몰입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¹ 교신저자: (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조교수. E-mail: jhpark0817@cu.ac.kr

²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역시 행복과 관련된 긍정심리 특성으로, 외부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행동으로 스스로 심취하여 행하는 내재적 행동을 얻는 경험이다 (Csikszentmihaly, 1999).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Wells, 1988), 몰입 경험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가진다 (You, 2002). 또한 몰입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Kim, 2002), 시험과 같은 스트레스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한다 (You, 2004). 행복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Jo와 Park, 2011).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과제 수행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Park, 200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Byeon, 2005).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긍정적 정서, 감사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Jo와 Park, 2011), 삶의 질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다 (Lim과 Seong, 2013).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이나 흥미'인 경우가 '취업보장' 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Nam과 Lee, 2014), 감사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 등, 2015).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Seo, 2015).

간호대학생은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간호학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Park과 Han, 2015), 일반대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낮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 2009; Jo와 Park, 2011). 그 중에서도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 중심의 간호교육 환경과 실습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O'Lynn, 2004), 군 입대로 인한 학업의 단절과 여학생들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다 (Lee 등, 2013). 또한 대부분의 남자 간호대학생은 남자를 간호사로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구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며 (Lee 등, 2005), 실제로 산부인과 병동 실습을 할 때 대상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해 여성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보고했다 (Smith, 2006).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퇴율은 여자 간호대학생보다 높고 (Dyck 등, 2009), 더 나아가 졸업 후 첫 4년 이내에 이직률도 여자보다 높았다 (Sochalski, 2002).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증진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취업 후 직업 적응에도 도움을 주고,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으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인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이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도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켜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나아가 이직률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84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7개를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 크기를 효과크기 $f^2 = .15$, 유의수준 (α) .05, 검정력 ($1-\beta$) .95로 산출한 결과 153명이었으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목표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총 응답자 184명 중 응답이 불완전한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171명 (응답율 92.9%)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대학 교수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을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를 취소하여도 선물은 회수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설문지 수거함에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넣도록 하였다.

2.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확인된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만족, 지각된 건강상태, 동료관계, 이전학기 성적, 경제상태 (Jun 등, 2015; Jo와 Park, 2011)를 포함하였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대경험 유무, 실습경험 유무 등을 추가한 1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 (2002)이 개발한 The Gratitude Questionnaire (GQ-6)를 Kwon 등 (2006)이 번안한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 (K-GQ-6)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7점)’의 리커트(Likert) 7점 척도,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7점에서 최고 4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 등 (2006)의 연구에 크론바 알파 (Cronbah's α)=.85였고,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 = .83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을 Jeon (1974)이 번안한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 4점 척도,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 (1974)의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85였고,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89였다.

4) 몰입

몰입은 You (2004)가 개발한 특성/몰입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없음 (1점)’에서 ‘아주 많이 느낌 (5점)’의 리커트 5점 척도,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53점에서 최고 2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u (2004)의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94였고,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83이었다.

5)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 (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 (2006)이 번안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리커트 7점 척도,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7점에서 최고 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yubomirsky와 Lepper (1999)의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86이었고, 본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86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였다.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84명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직접 본 연구에 대해 이해하여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사성향, 몰입,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t* 검증 (*t*-test)와 분산분석 (ANOVA)로 분석한 후 집단 간 차이는 사페검증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07세였고 3학년 (28.7%), 4학년 (25.1%), 1학년 (23.4%), 2학년 (22.8%) 순이었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57.3%로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 (42.7%)보다 더 많았고, 78.4%의 대상자가 군대경험이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대상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건강하다 (42.7%), 보통이다 (10.5%), 건강이 나쁘다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료관계는 좋다는 대상자가 49.1%로 가장 많았고, 매우 좋다 (31.0%), 보통이다 (18.1%), 좋지않다 (1.8%)의 순이었으며, 직전학기 성적은 3.0이상~3.5미만 대상자가 35.1%로 가장 많았고, 3.5이상~4.0미만 (33.9%), 3.0미만 (18.7%), 4.0이상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이 용이해서가 40.4%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어서 (24.0%), 다른 사람의 권유로 (18.7%) 순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42.1%로 가장 많았고, 보통 (35.7%), 매우만족 (16.4%), 불만족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간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52.0%로 가장 많았고, 상이 30.4%, 하가 17.5%로 나타났다 (Table 3.1).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N=171)

| Variables | Categories | n (%) or M±SD |
|----------------------------------|------------------------|---------------|
| Age | | 24.07±2.76 |
| Academic year | Freshman | 40 (23.4) |
| | Sophomore | 39 (22.8) |
| | Junior | 49 (28.7) |
| | Senior | 43 (25.1) |
|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 Yes | 98 (57.3) |
| | No | 73 (42.7) |
| Military service | Yes | 134 (78.4) |
| | No | 37 (21.6) |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Very health | 73 (42.7) |
| | Health | 75 (43.9) |
| | Moderate | 18 (10.5) |
| | Healthless | 5 (2.9) |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Very good | 53 (31.0) |
| | Good | 84 (49.1) |
| | Moderate | 31 (18.1) |
| | Bad | 3 (1.8) |
| Academic score | 4.0≤ | 21 (12.3) |
| | 3.5≤~ <4.0 | 58 (33.9) |
| | 3.0≤~ <3.5 | 60 (35.1) |
| | <3.0 | 32 (18.7) |
|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 Getting a job easily | 69 (40.4) |
| | Aptitude | 10 (5.8) |
| | Professionals | 41 (24.0) |
| | Other's recommendation | 32 (18.7) |
| | Others | 19 (11.1) |
| Nursing major satisfaction | Very satisfaction | 28 (16.4) |
| | Satisfaction | 72 (42.1) |
| | Moderate | 61 (35.7) |
| | Dissatisfaction | 10 (5.8) |
| Economic status | Above high | 52 (30.4) |
| | Middle | 89 (52.1) |
| | Under middle | 30 (17.5) |

3.2. 대상자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

대상자의 감사성향은 평균 33.04±5.15점 (최소 7점, 최대 42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32.70±4.98점 (최소 10점, 최대 40점), 몰입은 평균 162.80±15.32점 (최소 53점, 최대 265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21.15±4.21점 (최소 7점, 최대 28점)이었다 (Table 3.2).

Table 3.2 Degree of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N=171)

| Variable | Total | | |
|-----------------------|--------|--------|--------------|
| | Min | Max | M±SD |
| Gratitude disposition | 20.00 | 42.00 | 33.04±5.15 |
| Self-esteem | 20.00 | 40.00 | 32.70±4.98 |
| Flow | 105.00 | 214.00 | 162.80±15.32 |
| Subjective happiness | 8.00 | 28.00 | 21.15±4.21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지각된 건강상태 ($F=7.31, p<.001$), 동료관계 ($F=18.65, p<.001$), 직전학기 성적 ($F=4.39, p=.005$), 전공만족도 ($F=10.6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고 답한 대상자가 건강하다, 보통이다 및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동료관계에서는 동료관계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의 순서로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고, 직전학기 성적은 4.0이상인 대상자가 3.5이상~4.0미만, 3.0이상~3.5미

만 및 3.0미만인 대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불만족한다라고 답한 대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3.3).

Table 3.3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1)

| Characteristics | Classification | Subjective happiness | | |
|----------------------------------|--------------------------------|---------------------------|-------|-------|
| | | M±SD | t/F | p |
| Academic year | Freshman | 20.98±3.91 | 0.07 | .977 |
| | Sophomore | 21.38±3.68 | | |
| | Junior | 21.08±4.51 | | |
| | Senior | 21.16±4.68 | | |
|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 Yes | 21.24±4.50 | 0.35 | .723 |
| | No | 21.01±3.81 | | |
| Military service | Yes | 20.94±4.33 | 1.22 | .224 |
| | No | 21.89±3.70 | | |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Very health ^a | 22.55±3.60 | 7.31 | <.001 |
| | Health ^b | 20.53±4.06 | | |
| | Moderate ^c | 19.39±4.67 | | |
| | Healthless ^d | 16.20±5.85 | | |
| | | <i>a > b, c, d</i> | | |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Very good ^a | 23.28±3.91 | 18.65 | <.001 |
| | Good ^b | 21.36±3.43 | | |
| | Moderate ^c | 17.42±3.87 | | |
| | Bad ^d | 16.00±4.00 | | |
| | | <i>a > b > c, d</i> | | |
| Academic score | 4.0≤ ^a | 18.81±4.02 | 4.39 | .005 |
| | 3.5≤~<4.0 ^b | 21.72±3.93 | | |
| | 3.0≤~<3.5 ^c | 21.50±4.19 | | |
| | <3.0 ^d | 22.10±4.32 | | |
| | | <i>b, c, d > a</i> | | |
|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 Getting a job easily | 20.57±4.31 | 1.91 | .111 |
| | Aptitude | 20.31±4.28 | | |
| | Professionals | 22.39±3.90 | | |
| | Other's recommendation | 20.70±4.74 | | |
| | Others | 22.21±3.63 | | |
| Nursing major satisfaction | Very satisfaction ^a | 23.68±3.35 | 10.65 | <.001 |
| | Satisfaction ^b | 21.89±3.83 | | |
| | Moderate ^c | 19.72±3.95 | | |
| | Dissatisfaction ^d | 17.40±5.23 | | |
| | | <i>a, b > c, d</i> | | |
| Economic status | Above hight | 21.90±3.24 | 1.25 | .228 |
| | Middle | 20.75±4.59 | | |
| | Under middle | 21.00±4.48 | | |

3.4. 대상자의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몰입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주관적 행복감은 감사성향 ($r=.64, p<.001$), 자아존중감 ($r=.66, p<.001$) 및 몰입 ($r=.33, p<.001$)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어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몰입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성향은 자아존중감 ($r=.61, p<.001$), 몰입 ($r=.25, p=.001$)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몰입 ($r=.19, p=.015$)도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4).

Table 3.4 Correlations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flow and subjective happiness (N=171)

| Variables | Subjective happiness | Gratitude disposition | | Self-esteem |
|-----------------------|----------------------|-----------------------|-----|-------------|
| | | r | (p) | |
| Gratitude disposition | .64 (<.001) | | | |
| Self-esteem | .66 (<.001) | .61 (<.001) | | |
| Flow | .33 (<.001) | .25 (.001) | | .19 (.015) |

3.5.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학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지각된 건강상태, 동료관계, 직전학기 성적 및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감사 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 간에 .19~.66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독립 변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일반적 특성 4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5).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빈-왓슨 (Durbin Watson)값을 확인 한 결과 2.05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3.124~3.180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쿡의 거리 (Cook's distance) 통계량으로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 1.0이상의 개체는 없었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 (tolerance)는 .468에서 .847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80~2.13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은 모두 충족되었다. 회귀모형의 F값은 4.449, $p=.036$ 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상태, 동료관계, 직전학기 성적,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과 감사 성향, 몰입 및 자아존중감을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사성향 ($\beta=.32, p<.001$), 자아존중감 ($\beta=.33, p<.001$) 및 몰입 ($\beta=.12, p=.036$)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일반적 특성 중 동료관계 ($\beta=-.14, p=.031$)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6.1%였다.

Table 3.5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N=171)

| Model | R ² | Adj R ² | F | p | Variables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 Standardized coefficients | | t | p |
|-------|----------------|--------------------|--------|-------|----------------------------------|-----------------------------|-------|---------------------------|--|--------|-------|
| | | | | | | β | S.E | Std β | | | |
| 1 | .113 | .107 | 21.459 | <.001 | (Constant) | 24.359 | 0.757 | | | 32.167 | <.001 |
| | | | |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1.850 | 0.399 | -.336 | | -4.632 | <.001 |
| 2 | .254 | .245 | 28.554 | <.001 | (Constant) | 27.067 | 0.846 | | | 31.982 | <.001 |
| | | | |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0.800 | 0.412 | -.145 | | -1.943 | .054 |
| 3 | .262 | .249 | 19.802 | <.001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2.377 | 0.422 | -.421 | | -5.634 | <.001 |
| | | | | | (Constant) | 25.329 | 1.499 | | | 16.902 | <.001 |
| 4 | .320 | .303 | 19.511 | <.001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0.733 | 0.413 | -.133 | | -1.774 | .078 |
| | | | |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2.299 | 0.424 | -.407 | | -5.420 | <.001 |
| | | | | | Academic score | 0.434 | 0.309 | .096 | | 1.404 | .162 |
| | | | | | (Constant) | 27.734 | 1.580 | | | 17.553 | <.001 |
| 5 | .518 | .503 | 35.41 | <.001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0.602 | 0.400 | -.109 | | -1.506 | .134 |
| | | | |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1.923 | 0.421 | -.341 | | -4.569 | <.001 |
| | | | | | Academic score | 0.344 | 0.299 | .076 | | 1.151 | .251 |
| | | | | | Nursing major satisfaction | -1.318 | 0.352 | -.255 | | -3.743 | <.001 |
| | | | | | (Constant) | 11.049 | 2.428 | | | 4.551 | <.001 |
| | | | |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0.204 | 0.341 | -.037 | | -0.597 | .551 |
| 6 | .567 | .552 | 35.85 | <.001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1.455 | 0.360 | -.258 | | -4.042 | <.001 |
| | | | | | Academic score | 0.361 | 0.252 | .080 | | 1.430 | .155 |
| | | | | | Nursing major satisfaction | -0.602 | 0.310 | -.116 | | -1.941 | .054 |
| | | | | | Gratitude disposition | 0.405 | 0.049 | .496 | | 8.227 | <.001 |
| | | | | | (Constant) | 6.315 | 2.551 | | | 2.475 | .014 |
| | | | |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0.036 | 0.325 | -.055 | | -0.941 | .348 |
| 7 | .579 | .561 | 32.01 | <.001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0.928 | 0.363 | -.164 | | -2.556 | .012 |
| | | | | | Academic score | 0.006 | 0.253 | .001 | | 0.024 | .981 |
| | | | | | Nursing major satisfaction | -0.463 | 0.296 | -.089 | | -1.563 | .120 |
| | | | | | Gratitude disposition | 0.278 | 0.055 | .340 | | 5.029 | <.001 |
| | | | | | Self-esteem | 0.275 | 0.063 | .325 | | 4.342 | <.001 |
| | | | | | (Constant) | 0.656 | 3.684 | | | 0.178 | .859 |
| 8 | .579 | .561 | 32.01 | <.001 |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 -0.290 | 0.322 | -.053 | | -0.903 | .368 |
| | | | | |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 -0.793 | 0.365 | -.141 | | -2.175 | .031 |
| | | | | | Academic score | 0.029 | 0.251 | .006 | | 0.114 | .909 |
| | | | | | Nursing major satisfaction | -0.330 | 0.300 | -.064 | | -1.101 | .272 |
| | | | | | Gratitude disposition | 0.263 | 0.055 | .322 | | 4.782 | <.001 |
| | | | | | Self-esteem | 0.283 | 0.063 | .335 | | 4.505 | <.001 |
| | | | | | Flow | 0.032 | 0.015 | .116 | | 2.109 | .036 |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동료관계 및 몰입이었으며, 이들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56.1%를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Jo와 Park, 2011; Lim과 Seong, 2013; Kim과 Lee,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보고한 것 (Lee 등, 2015)과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사랑, 존경, 신뢰와 돌봄을 받을 때 강화되는 자아존중감 (Sung, 2008)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었지만,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1학년 보다 3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 ($t=5.48, p<.001$) (Oh와 Park, 2010)과 4학년의 자아존중감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 ($t=3.93, p=.049$) (Kim과 Lee, 2015)도 있어, 추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감사성향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감사성향은 33.04점 (42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을 조사한 결과인 33.72점 (Jo와 Jun, 2014), 33.52점 (Jun 등, 2015)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리고 Jo와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감사성향이 31.12점인 것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가 21.15점 (28점 만점)인 것에 반해, Jo와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 정도가 19.86점 (28점 만점)인 것으로 미루어, 따라서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사일지를 쓴 대학생집단이 경험일지를 쓴 대학생집단 보다 높은 인지적 안녕감 ($t=2.06, p<.05$)을 보고한 것 (Noh와 Lee, 2011)과도 일맥상통한다. 감사성향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Kown 등, 2006), 간호학 전공과 임상실습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감사성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동료관계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나쁘다고 한 대상자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F=36.19, p<.001$) 나타난 결과 (Jo와 Park, 2011)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 ($r=.55, p<.001$)를 보였고 (Jun 등, 2015),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던 ($F=5.119, p=.002$) 결과 (Kim과 Lee, 2015), 대인관계가 좋은 대학생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F=14.24, p<.001$) 나타난 결과 (Lee 등, 2015)를 고려한다면 동료관계 개선을 위해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의 남녀동료 및 의료인과의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구체적인 중재 및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실습교육이 조별로 이루어지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므로, 선·후배간의 지지적 관계형성 및 이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동료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몰입이었다. 이는 대학생의 몰입이 주관적 행복과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r=.48, p<.01$), 주관적 행복의 가장 큰 설명력 ($\beta=.039, p<.001$)을 나타낸 결과 (Lee, 201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대학생의 몰입은 대학 생활적응 ($\beta=.43$)과 학업성취 ($\beta=.44$)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Lee, 2011)으로 미루어 볼 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지지하고, 환경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줄 때, 대학생할 적응과 학업성취가 높아지며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각

된 건강상태, 직전학기 성적 및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라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대학생의 행복요인 중 하나로 신체적 측면의 건강요인이 포함된다는 것 (Shin, 2007)과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나타낸 것 ($F=12.62, p<.001$) (Jo와 Park, 2011),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간호대학생이 6시간 이하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 ($F=4.530, p=.011$)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못한 대상자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던 ($F=7.642, p<.001$) 결과 (Nam과 Lee, 201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행복감이 더 높았던 결과 (Kim과 Lee, 2015; Jo와 Park, 2011)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던 ($F=31.75, p<.001$) 결과 (Jeon과 Yeom, 2014)와 연관 지어 볼 때, 자신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전공에 대한 만족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행복을 느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성적이 4.0미만인 대상자가 4.0이상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높게 측정된 결과 (Jun 등, 2015; Jo와 Park, 2011)와는 상반된다. 남자 간호대학생은 전공 공부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 (Youn, 2012)와 남자 간호대학생이 간호학과에서 전공수업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 (Jeon과 Yeom, 2014)으로 비추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전공 특성, 성별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추후 연구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21.15점 (28점 만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한 Jo와 Park (2011)의 결과 19.86점보다 높았고, 대학생의 행복을 측정한 Lee 등 (2015)의 결과 19.31점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20.77점, 여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18.58점보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 높았던 것 (Kim과 Lee, 2015)과, 남자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20.29점으로 여자 대학생의 18.95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t=6.49, p=.011$) 나타난 것 (Lee 등, 2015)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라 사료된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정서에 가치를 높게 두며 남자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Hwang과 Kim, 2009),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중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접 비교가 아니므로 추후 비교 반복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이 여자 간호대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은 높지만 자퇴율과 취업 후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감사성향, 동료관계 및 몰입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56.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감사성향을 높이고 동료관계와 몰입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결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yeon, K. B. (2005).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elf-control,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 Cho, H. S. (2009).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2**, 3-14.
- Csikszentmihaly, M. (1999). If we are so rich, why aren't we happ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4**, 821-827.
- Danner, D., Snowdon, D. and Friesen, W. (2001).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ding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04-81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yck, J. M., Phinney, A. and Garrett, B. (2009). Nursing instructors and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undergraduate classroom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Today*, **29**, 649-653.
- Fredrickson, B. L., Tugade, M., Wauugh, C. E. and Larkin, G. R. (2003). What good ar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 on the untide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56-376.
- Hwang, J. W. and Kim, K.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 57-71.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institute*, **11**, 107-124.
- Jeon, H. O. and Yeom, E. Y. (2014).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 796-807.
- Jo, M. J. and Jun, W. H. (2014). Effect of hope and gratitude on spirit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 569-576.
- Jo G. Y. and Park H. S. (2011).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 160-169.
- Jun, W. H., Cha, K. S. and Lee, K. L. (2015).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 276-284.
- Kim, C. D. (2002). A career counseling mosel using 'flow'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 5-30.
- Kim, H. J. (2009). *Th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flow and meaning in life of university student's upon their happiness*,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I. J. (2006). *Positive psychology*, Mulpure, Seoul.
- Kim, M. S., Kim, H. W., Han, Y. S. and Lim J. Y. (2003). Expolorations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 1-33.
- Kim, S. H. and Lee, S. H. (2015).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 Journal of Adult Nursing*, **27**, 63-72.
- Kim, Y. S. and Seo, J. Y. (2015).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1439-1452.
- Kwon, S. J., Kim, K. H. and Lee, H. S. (2006). Validation of the Korea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177-190.
-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Hakjisa, Seoul.
- Lee, M. H. (2014). *The effect of positive emotion, flow, meaning of life, sense of accomplishment,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s of university students up on their happiness*,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D. Y., Baik, S. H. and Choi, J. K. (2013). Education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olistic Health Science*, **3**, 25-36.
- Lee, J. S., Kim, N. J., Doo, H. J., An, J. Y. and Lee, Y. K. (2005).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4**, 159-169.
- Lee, S. H., Chung, B. Y. and Kim, S. H. (2015).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 115-126.
- Lee, S. J.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 235-253.
- Lim, E. J. and Seong, J. A. (2013). A study on the relation of laughter index, self esteem, subjective hapiness, quality of lif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olistic Health Science*, **3**, 25-31.

- Lyubomirsky, S. and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cCullough, M. E., Emmons, R. A. and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12-127.
- Nam, M. H. and Lee, M. R. (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 363-374.
- Noh, J. H. and Lee, M. G. (2011). Why should I be thankful? The Effects of Gratitude on Well-Being under the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159-183.
- Oh, S. Y. and Park, S. N. (2010). The changes of self-esteem and leadership during two yea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 186-193.
- O' Lynn, C. E. (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 229-236.
- Ostir, G. V., Markides, K. S., Black, S. A. and Goodwin, J. S. (2000). Emotional well-being predicts subsequent functional independence and survival.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8**, 473-478.
- Park, H. S. and Han, J. Y. (2015).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695-706.
- Park, S. Y. (2003).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Y. S. and Kim, U. C. (2006).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 161-19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Shin, J. Y. (2007).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 Master Thesis, Chun-Ang University, Seoul.
- Smith, J. S. (2006). Exploring the challenges for nontraditional male students transitioning into a nursing progra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5**, 263-268.
- Sochalski, J. (2002). Nursing shortage redux: Turning the cover on an enduring problem. *Health Affairs*, **21**, 157-162.
- Sung, M. H.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 84-96.
- Wells, A. J. (1988). *Self-esteem and optimal experience*, In M. Csikszentmihalyi and I. 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You, Y. D. (2002).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low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diction counselling program.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0**, 1-34.
- You, Y. D. (2004). The effect of flow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at a testing situ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219-242.
- Youn, M. S. (2012). The study of nurse image and job recognition about male nurse of male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Holistic Health Science*, **2**, 229-236.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i-Hyun Park¹ · Geum-Yi Jo²

¹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²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Received 29 February 2016, revised 23 March 2016, accepted 25 March 2016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Collecting data from 171 male nursing students, we carried ou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n SPSS Win 20.0.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were self-esteem, gratitude disposition,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and flow. These factors explained 56.1% of subjective happiness. The results suggest that an effective approach to happiness promotion program for male nursing students should consider self-esteem, gratitude disposition,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and flow.

Keywords: Happiness, nursing students, self-esteem.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fered fro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5.

¹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42472, Korea.
E-mail: jhpark0817@cu.ac.kr

²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Daegu 42601, Korea.